

“유교에 있어서 종교지도자 교육”에 대한 논평

이 재 일

(선문대학교)

1) 타종교와 달리 제도적 종교의 성격이 약한 유교에 대해 논해야 하는 발표자는 “탄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글을 시작하였다. 이 글은 세속화와 다종교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적합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종교”로서의 유교, 나아가 유교의 교육과 수양이란 종교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초월의 과정이고 인간의 완성이며 만물의 완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으로써 오늘의 종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다종교 상황을 짚어보면서 ‘제소리’를 하였다고 본다. 즉, “다종교 사회와 종교지도자의 교육”이란 이번의 학술 세미나에 적합한 논문을 발표하여,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여겨진다.

2) 우리 나라가 서구문물에 의해 근대화되면서 한국의 유교는 그 찬란한 영광을 상실해 왔다. 그러나 유교는 현재에도 전통적 관습과 예절 및 가치관으로 남아있으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상례와 제례의 측면에서는 유교가 부동의 위치를 지켜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교는 종교와 사상, 윤리의 경계선 상에 있어왔다.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유교적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에서조차 유교는 제도적 종교의 성격이 강하지 않다. 유교가 현재에도 한국 사회에서 생활관습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 종교임에는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修己安人 또는 內聖外王에 관한 道라 인정되는 유교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는 그 修己의 전통, 곧 심신수

양의 실천전통을 상실한 것 같다. 이를 발표자는 ‘죽은 유교’로 보았다.

그러나 발표자는 이러한 유교가 현대 사회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였는데, 토론자는 이것은 바로 유교의 현대화 문제라고 본다.¹⁾

3) 종교를 절대신념체계라고도 한다. 하나의 종교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하나의 절대신념체계가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다종교 사회란 절대신념체계가 여럿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절대신념체계가 여럿 있으면 서로를 상대화하여 어느 종교도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도덕이나 윤리 규범의 기준이 없는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사회가 된다(윤이홍, 1993: 91-92).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이다.

이에 더하여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과학화, 정보화, 기술화, 물량화한 사회가 되어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시대보다 정치와 경제 부분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사회에 바람직한 君子는 공자 시대의 군자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상황이 달라지면 이상적 인간상도 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유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자 과제인 유교의 현대화에서 핵심적 사항은 “21세기에 걸맞는 君子는 어떠한 인물인가?”에 있다고 본다.

이 시대에 공자가 나타난다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가르치며 사실까?

이 시대의 군자상은 어떠한 것인가?

이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상은 무엇인가?

이는 곧, 현대사회에서 유교 교육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 정립에 대한 물음

1) 1985년에 유교학회가 宗教化, 孔孟化, 韓國化, 大衆化를 유교의 현대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1995년에 유교의 종교화가 선언되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유교는 교조, 교리, 경전, 종교의례는 있으나 사제와 신자조직이 뚜렷하지 않고, 초월성이 약하다. 그러므로 유교가 교학 중심의 유학자 층에만 안주하지 않고 종교적 소임을 다하려면 신자조직의 체계화와 초월성의 심화 및 현대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발표자의 주장처럼 인간의 경험에서 초월의 신호를 찾는 귀납적 신앙은 초월성의 심화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선언은 실천을 향한 의지의 표명일 뿐이다. 이제 요구되는 것은 실천해 나아갈 인재이다. 다시 말하면 신자조직의 체계화와 초월성의 심화 및 현대화로 이끌어 나아갈 지도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다.

4) 종교는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종교란 이상적 인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는 곧, ‘창시자 닮기’의 노력이다. 예를 들어보자. 불교란 석가세존을 닮으려는 노력이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이다. 마찬가지로 유교란 공자를 닮으려는 노력이다. 이는 곧, 君子가 되려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유교의 지도자 교육은 공자 닮기 교육이고 군자 되기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군자상을 형성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교육방법이란 어떠한 것일까? 발표자는 소학과 퇴계의 성학십도를 인용하면서 일상에서의 교육과 수양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토론자에게는 퇴계조차도, 특히 현대적 삶의 자리에서 볼 때, 일상을 벗어난 특수한 자리에서 초월을 추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전통적 유교의 교육방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할 것인가? 특히 성리학적 전통이 강한 한국 유교에서 거경과 궁리의 공부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이 시대에 향교나 성균관, 성균관대학교의 유학대학에서는 어떻게 군자 닮기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풀어야 심신수양의 실천적 전통이 살아날 것이다. 21세기 한국사회의 대중 속에서 살아 숨쉬는 유교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윤이흠(1993). 현대인의 삶과 종교. 서울: 고려한림원.